

#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대폭 늘린다

### 나주 계량·고흥 서호 등 읍 7곳

### 2026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 안전 농산물 생산 늘려 소득 증대

전남도가 올 하반기 유기농 생태마을 7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농산물의 고급화 전략을 통해 도내 농가 소득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관리 중인 유기농 생태 마을은 45개로, 2026년까지 100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제1차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전국에서 처음 수립하기도 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유기농 생태마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생태환경이 잘 보전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마을이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작물별로 벼 농가는 10호 이상이 참여해 친환경인증면적 10ha 이상(유기농 비율 30% 이상), 과수 및 채소는 5호 이상 친환경인증면적 1ha 이상(유기농 비율 30% 이상)인 마을이 지정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받은 생태마을은 나주 계량마을, 담양 유촌마을, 고흥 서호마을, 해남 연자마을, 영암

성지전마을, 영광 여술마을, 장성 생촌마을이다. 나주 계량마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13.3ha로 유기농 12ha, 무농약 1.3ha를 인증받았다. 마을 내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문화재 49호인 노안성당이 있고, 마을 주민의 90%가 가톨릭 신앙인으로 매년 12월 해피크리스마스 이슬촌 축제를 개최한다. 또 벼농사 및 쌀체소 수확 체험, 떡메치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담양 유촌마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29호, 인증면적 24.2ha다. 인증면적 대비 유기농 인증이 20.8ha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무, 옥, 당근,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등 벼 이외 품목을 다양하게 인증받았다. 친환경 농산물로 전통 방식의 쌀엿을 생산하고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고흥 서호마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15.5ha로 유기농 14.3ha, 무농약 1.2ha를 인증받았다.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 전사한 송재 등 충렬을 기리기 위해 전라남도 기념물 제74호로 지정된 송재충충일각이 있다. 우렁이농법 체험, 벼 수확 및 방울토마토 따기 체험 등 도시민 친환경 현장 체험도 가능하다.

해남 연자마을은 유기농 인증면적 24.2ha로 유기농 100% 마을이며, 벼, 밀, 보리, 귀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다양하게 인증을 취득했다. 맥주

보리 국내 최대 재배지로 매년 4~5월께 연호보리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영암 성지전마을은 전체 농가 19호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18호로 인증면적은 27.2ha다. 인근에 왕인박사유적지, 월출산 국립공원 등 자연경관과 관광인프라가 구축돼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영광 여술마을은 유기농 인증면적 22.7ha로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실천(유기농 100%)하는 마을로 와탄천이 흐르고 철새가 찾아오는 지역이다. 마을에는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이 있다. 청년 농가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도가 높고 유기농에 대한 관심과 마을 주민 공동체 의식이 높은 마을이다. 장성 생촌마을은 유기농 인증면적 11.2ha로 유기농 100% 마을이다. 평립담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 마을로 제초제 사용 안하기,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을 한국 수자원 공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오당산제를 지내는 마을로 전통 문화를 계승 유지 중이다.

우덕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 생태마을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대하고 도농 공동체를 실현하는 성공 모델로 성장·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순천만서 '전남 방문의 해' 관광객 맞이 캠페인

### 더 친절·청결·안전 '3더 운동' 홍보

전남도는 지난 21일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관광객들을 잘 맞이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캠페인은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관광협회가 주관했다. 순천시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전남관광재단, 순천시관광협회, 전남외식업협회 순천시지부도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지역 주민과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방문의 해를 알리고 관광객 환대 분위기 조성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

했다. 또 주변 음식점소를 방문해 더 친절하게, 더 청결하게, 더 안전하게라는 '3더 운동' 참여 스티커와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불거리 마련 못지않게 친절환대 의식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광수용태세 확립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다시 찾고 싶은 전남, 머물고 싶은 전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1월 목표와 순천에서 숙박·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남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친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서비스 교육을 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8

## 전남도 10월 전통주

### 강진 '병영소주' 선정

### 9월 전통주 순천 '하늘담'

전남도가 10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강진 병영양조장의 '병영소주'를 선정했다. '병영소주'는 알코올 도수 40도로 대한민국 제61호 식품명인 김경식 명인이 100% 강진 햇보리쌀과 직접 만든 전통 누룩으로 빚은 보리소주다.

덧술을 두 번 하는 삼양주 방식으로, 원주를 만든 뒤 이를 30일 정도 저온 발효한다. 발효한 밑술을 증류한 후 1년 더 숙성시켜 시중에 판매한다. 강진지역의 신선하고 품질 좋은 재료에 명인의 정성이 담긴 '병영소주'는 높은 도수에도 부드럽고 깔끔한 맛과 깊은 향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전남도가 주최하는 남도 전통주 품평회 증류주 부문에서 3회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식음료 품평회에서 투스타를 수상하는 등 국내외를 불문하고 세계적으로 맛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9월 남도 전통주는 매실과 햅쌀을 이용한 고급 약주인 순천주조의 '하늘담'으로, 알코올 향이 강하지 않고 부드럽워 마시기 좋고 청매실의 향과 맛이 은은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평생학습 박람회' 3만여명 찾았다

### 100여 기관·단체 참여 성료

'제3회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가 지난 22일까지 광양 성황스포츠크센터에서 '에코 배움터! 전남+평생학습'을 주제로 열렸다.<사진> 사·군, 교육청, 대학, 출연기관 등 100여 기관·단체가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는 관람객 3만여 명이 찾았다. 특히 전남도, 교육청, 광양시 세 기관의 주재관은 박람회 주제에 맞춰 친환경 재활용 목재를 사용한 개방형 구조로 꾸며져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 주재관은 평생학습 주요 시책 홍보와 디지털 문해교육 키오스크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 관람객들로 붐볐다. 또 사·군 홍보 체험부스는 생태환경,

인공지능(AI) 디지털, 지역특화 프로그램, 취미활동, 직업교육 등 관람객이 관심 분야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반응이 좋았다. 이밖에 사·군 도서관과 광양시 기관단체에서 준비한 부스도 체험프로그램과 평생학습 동아리공연, 문해시화전, 평생학습 작품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기후 위기 시대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활 속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단 한 명의 도민도 배움에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평생학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도, 무장애나눔길 등 녹색자금 36억 확보

### 내년 공모 3개 사업 7개소 선정

전남도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3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복지시설나눔숲, 무장애나눔길, 무장애도시숲 등 3개 사업 7개소가 선정돼 36억원의 녹색자금을 확보했다. 지난해보다 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실외공간에 숲을 조성하고 보행약자도 편리하게 숲을 체험하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선정된 복지시설의 실외공간에는 다양한 초화류와 수목을 심어 심신치유를 위한 나눔숲 공간을 구축한다. 또 무장애나눔길 사업지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 누구나

숲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 사업에 이미 조성한 도시숲을 보행약자도 쉽게 이용하도록 개선하는 '무장애 도시숲' 사업 2개소가 신규 선정돼 쾌적한 생활환경과 품질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다양한 계층이 접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누구나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사회복지시설 실외공간에 76개소 나눔숲과 무장애 나눔길 10개소 9.2km를 조성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산림활동 접근성을 개선해 누구나 숲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정서를 함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림복지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소외계층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도 우수건축물 11월 7일까지 공모

전남도가 아름다운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시상계획'을 공고하고 출품작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 우수건축물 선정 및 시상은 도시 미관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건축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도시품격과 건축문화에 대한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 건축물은 건립 시기에 관계없이 전남도내 사용승인을 받은 민간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참여

할 수 있으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기관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출품된 작품은 전남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대상 1개, 최우수상 1개, 우수상 3개 등 총 5개 작품을 선정해 11월 중 발표한다.

공모 참여는 11월 7일까지 서류를 갖춰 전남도 건축개발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